

학생운동 '자주시대' 선언

I. 90년도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분석

승리하는 90년대를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는 89년 선거에 비해 매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자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90년도 각 학교 선거분석과 '91년도 학생운동 방향

있음을 단단하게 보여 주었다고 평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얼마전 11월 총선거를 올바로 이끌어 내기위해 각 학교 총학생회를 순회하며 격려를 하던 송갑석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의장과 구석과 연이어 나타난 김재웅(한양대 총학생회장) 전대협대변인 불발연행 및 구속은 백만화도도 하여금 중요성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속에서 치루어진 이번 선거를 살펴볼때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선거를 치른 서강대의 경우 민족해방(NL)후보와 민주민주(PD)후보가 출마하면서 타학교 학생들의 귀추를 주목시켰다.

당초 민족해방후보의 압도적 승리예상을 뒤엎고 민주민주후보가 당선된 것이었다.

서강대의 선거결과에 대해 각 학교에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다. 민족해방측에서는 동시에 각 학교 단체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외의 결과에 대해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민주민주측에서는 이제야말로 올바른 평가되어 지는구나'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부산의 부산대와 동아대, 광주의 전남대와 조선대, 대전의 한남대와 충남대, 수원외의 한신대 등 지방학교에서 민족해방후보의 연이은 승진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후 서울에서는 서울대, 한양

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외국어대, 홍익대, 서울대, 경희대 등 중심대학에서 민족해방후보의 연승으로 나타났다.

당초 민주민주와 민족민주(ND)측에서는 단일후보를 내세워 표를 모으기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으면서 작년의 민족해방-민주민주연합후보의 대립에서 민주민주내에서 두 후보를 내세우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당초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표출되면서 선거는 자주적 학생회'의 가치를 올린 민족해방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물론 주변상황의 변화만이 선거를 좌지우지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기간의 대항사업의 결과 역시 더 중요한 요인임을 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번 90년도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들고 나온 공약들을 총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회 강화'의 측면에서는 어느 후보나 동일하게 들고 나왔으나 강화의 방도에 대해서는 민주민주후보에서는 올해의 학생회사업을 '대중추진주의적, 대민주주의적 사업이었다'고 평가

하면서 '학생회의 집행력과 정치지도력의 강화'를 주장하고 나왔으며, 민족해방후보에서는 기존의 학생간부들의 사업작품의 혁신을 피력하면서 학년, 학생회 건설을 기본으로 과, 단체, 총학생회 강화와 분임토의에 기초한 학생총회의 정례화를 주장하였다.

학원자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 역시 공통적으로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참여의 내용과 형식의 구체적 대안 마련과 학원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교직원

의 전체적인 참여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들었다.

가장 첨예한 문제인 정치적 견해 및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보면, 먼저 민주민주측에서는 '노태우정권에 대한 4천만 민중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투쟁의 불만 불미현 전 민중이 전선에 나설 수 있는 시기'라고 주체적 역량에 대해 진단을 내리면서 당면 투쟁목표로 92~93년의 투쟁목표에 대해선 '노태우 정권 완전타도, 민주권력수립'이라는 입장과, 내각제 개헌지지 투쟁에 대한 인식 및 보수야당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각제 개헌 문제가 장기집권의 해



심적 문제만은 아니다. 내각제 개헌지지 투쟁에 보수야당과 연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며, 민족해방후보에서는 '전노협 20만, 전농 30만의 조직 가입을 보여지듯 반노태우의식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올바른 사상에 입각한 의식화 조직화가 미약하다'라고 주체적 역량에 대해 진단을 하면서 당면 투쟁목표와 92~93년 투쟁목표에 대해선 '내각제 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하며 민중생존권 쟁취, UR반대투쟁을 보조적으로 한다'면서 민주연합 건설을 바탕으로 한 민주연합정수립으로 보고, 내각제 개

헌 지지투쟁에 대한 인식과 보수야당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는 '내각제는 친미파소제제를 안정화하는 필연적 통과지점이다. 92~93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각제지지 투쟁을 위한 범민주연합전선의 구축이 절대적필요의 과제이며, 보수야당의 상층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야당에 아직도 정치적 희망을 걸고 있는 다수인 중들과 연대를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II. 91년도 학생회 사업전망

'민주민주추진, 민족해방현상 유지, 비운동권물류'이라고 이번

이다'라면서 기존의 사업작품을 평가내리고 있다. 또한 '분임토의를 토대로 일상적 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하면서, 형식적 총회를 지양하고 동시에 분임토의-학년회의-과-단체-전체총회를 개최하여 총회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중추추진위원을 강화시킬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학생회가 대중추진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자주적 학생회는 대중의 자주성을 형식과 체계의 문제로만 협소화시켰던 민주적 학생회의 오류를 극복하고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학생회건설의 문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바라보는 견해의 입장에 서있는 논자들은 지금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도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노동권의 장기집권은 지금의 정치대립구도를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도로 보면서 그속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고립시키려하고 있다.

현 정치적 대립구도를 보수와 혁신의 대결로 바라보게 되면 미국과 노동권의 보수-혁신구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식민지성이 남한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했을때 그리고 남한이 자본주의가 미국에 의해 이식되고 그 과정이 심하게 왜곡되어있다고 했을때, 남한에서는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도만 가능할까? 사회의 중간층을 포섭할 수 있는 개방의 물적토대를 쌓아야 한다.

서구의 발전된 자본주의에서도 식민주의자를 취취한 인여가치분으로 그 사회개방의 물적토대를 쌓을 수 있어 개방화가 가능하지만 남한에서는 그런 개방의 물적토대를 쌓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독점자본에 수탈되고 있는 처지이다. 또한 보수-혁신구도로 지금의 대립정국을 파악했을때 노동권과도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력을 협회화하는 심각한 좌편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자신의 정권이나 당파를 떠나 모든 제민주의가 총집결, 장기집권으로 분쇄와 민주정수립을 위해 투쟁할 때이다.

보수-혁신대립이 아니라 민주-반민주의 대결구도로 하며 자주와 혁신, 통일과 분단체적의 총체적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연합 전선구축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합법정당을 중심으로 하자는 견해와 반합법전선체인 전진전이나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하자는 견해가 제출되고 있으나 이점 또한 92~93년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바라보면서 제민주세력을 분분히 묶어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91년도는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의 제력강화의 시기가 될 것이며, 91년도의 준비여하에 따라 92~93년도의 수위를 누가 잡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특집부>

자주적 학생회 건설 및 강화 주창한 민족해방팀의 독무대 이후 정치투쟁, 대선 총선 겨냥 대중적 토대마련에 박차 가할듯

서로 돕고자 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은 민족의 정서

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혹은 다가올 현실에 대하여 요즈음의 우리는 수동적이고 관조적으로만 대하며 살아오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우선 무엇이 인간을 수동적이고 관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하자.

인류의 전 역사는 대립과 상호침투의 역사'라 하여도 무방할 듯 하다. 원시시대에서 우리의 조상은 자연과 맞

들 싸워나가기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자본주의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자본가와 노동자는 이전 사회의 생산구조와 별반 차이가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의 발전과정과정을 살펴보면 생산수단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와 생산관계의 증가는 사회를 발전시켜온 근간이 되었다. 또한 분명히 인지 하여야 할 사실은 사회의 변화·발전은 주도한 것은 바로 인간자신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변화 발전 법칙

인주의로 만연된 비주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그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살펴볼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동체적, 서로 서로를 돕고자 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은 우리 한민족에 면면히 흘러내려온 자존심이자 긍지였다.

지금도 농촌에 가보게 되면 '똥맛이'라 하여 옛부터 내려오는 공동작업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한민족의 여유있는 '생활의 비종양'은 언제부터인가 찾아 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들의 자주적의식과 양과 일반민중들의 정치참여 의식의 증가는 우리 한민족의 지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으며, 민족의 앞날에 소중한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라 본다.

자주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야말로 다시 찾아서 가꾸어 나가야 할 우리민족의 뿌리인 것이다. 자주성이야말로 개인 스스로가 모든사물에 주인 의식을 갖고 세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연과의 대립속에서 모든 자연의 유용한점을 인간의 삶에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왔던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시 일깨워야 할 우리의 희망

서 대항하면서 식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고대노예제에서의 우리의 조상들은 노예주와 노예라는 상반된 계급간의 갈등구조속에서 결국 노예들의 자각은 사회를 봉건제로 바꾸어 놓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봉건영주와 농노와의 사회를 속에서 노예에 비하여 인간적 대우는 받으며 살아가는 농노였으나 여전히 생산물에 대한 봉건영주의 착취는 이루어져 왔고 '인간의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삶의 대항 모든 노력(생산수단의 발전, 생산력의 증가)의 결과로 다시 자본주의제라는 사회를 꾸리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제 역시 나름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

에 복종되어 자연과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이간사회의 고유한 사회적 존재이다. 예전엔 반계와 천동이 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노획했다' 생각하고 제사의식을 올리곤 하던 모습에선 이전 피조물을 세우 유용하게 대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창조적인 모습이 자본주의제라는 특수성에 기인, 상당부분 퇴색해져 버렸다. 예가 바로 '내일의 주역' '미래의 역군'이라고 흔히 일컫는 젊은이들의 요사이의 이기주의와 개

선거에 대해 나름대로 사전분석·보도를 한 제도언론의 전망을 뒤엎고 민족해방후보가 대거 당선됨을 함으로써 91년도의 각 학교 학생회사업의 기본 기조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민족해방 후보의 공약중 자주적 학생회건설 및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91년도 학생회사업을 일정정도 예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자주적 학생회의 운영원리는 한마디로 자주·민주·통일의 원리라고 밝히면서 어떤안건이 학생회사업에 제기되었을 때 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민주적 토론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하나의 통일집결된 의견과 실천을 내세우는 뜻을 밝혔다.

이제껏 학생회사업을 민주적 중재를 조직운영의 원리로 삼고 진행시켰다고 평가하면서 민주적 중재 또한 올바른 조직운영의 원리였지만 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때 내용없는 형식적 민주주의도 소수 선진간부의 독재, 독단으로 전락하게 될'을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과학생회 정기총회를 할 때 민주적 토론 절차도 있고, 통일된 결론도 내려지지만 대다수 학우들이 주어진 자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통일된 결론은 전제학우의 의견이 통일·집결된 것이 아니라 소수선진간부가 토론에 앞서 밝혔던 의견이 거의 대부분수정없이 반복된 것에 불과한 것

를 보다 근본적인 사상의 문제로까지 확대하여 새롭게 제기한 것이다'고 밝히면서 '자주적 학생회 탄생의 배경을 간파한 채 자주적 학생회가 대중의 똥똥무니만 쫓아 다닌다고 비판하는 세력들 또한 그릇된 대중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학생회에서 대중의 이해와 요구는 경제적, 일상적 요구만이 가능하고 정치적 요구는 외부로부터 주입될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대중은 똥을 던져주면 받아먹는 피동적 존재이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운명의 주인은 아니라고 암암리에 단정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현시기는 선도적 투쟁이나 방한제시보다 비록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대중의 자주적 진출을 적극 보장하고 도모해야 할 때이며, 다가오는 92~93년 정치적 격변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91년도는 확고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임을 주장하고 있다.

III. 91년도 학생운동의 전망

현 정국은 백만화도의 정치사상의 구성이자 투쟁의 구심인 전대협을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조직사건과 결부하여 전대협 외해공작을 피하려하고 있다. 전대협은 47출발을 가지면서 학우들의 조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울려서 통해서 충분히 보여 주었다.

한국사회를 독자적인 자본주의

■ SERIES-⑤타인존심적 사고편

만족한 소비자가 최선의 광고이다.

이랜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와 남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가 바로 이랜드 사람입니다.

매년 100% 이상의 성장, 대기업의 수준을 넘어서는 신입사원 선발, 5년 후에는 10대 기업군에 진입할 것이라는 포부는 '신화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 왔으며 지금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랜드 신화를 창조하기까지에는 드러나지 않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저축적으로 고액이 되어 주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애정으로 우리를 소개했던 소비자 여러분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만족한 소비자가 최선의 광고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러한 경험은 타인 존심적 사고,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가질 때에 우리의 유익 역시 보장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옷을 만드나.
2. 우리가 사고 싶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3. 값은 저렴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품질을 내놓는다.
4. EYE SHOPPING 손님도 부담없이 출입할 수 있는 매장 분위기를 만든다.
5. 매장의 문을 항상 열어둔다.
6. 무엇보다 묻지않고 먼저 알아든지 옷을 입혀 볼 수 있다.

5.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매일 100번 이상 웃는 연습을 한다.
- 교환, 환불을 자유롭게 한다.
6.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넓은 판매망을 갖춘다.

이것이 우리회사의 첫번째 성장비결이었습니다.

타인 존심적 사고는 회사의 분위기를 만드는 근간이 됩니다. 각 부서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보다 상대방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노력했고,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직장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로,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전 산업분야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멋있어지고, 온 가족이 어울려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30년을 함께 일해왔 곳, 그 곳이 바로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가족은 6차례에 걸쳐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주)이랜드●(주)브랜파노●(주)언더우드●(주)헛트●(주)리틀·브랜●(주)제콜라모●(주)테레지아●(주)웨인●(주)스코필드●(주)로이드●(주)브랜패럴●(주)언더우드 건설●(주)레오 페레●(주)리드

이동복
● 각 사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독특한 정열을 개발시켜주는 산하로, 사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이랜드사람들.
52.12 서울 출생, 기온
75.2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졸업
77.9 동양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84.3 이랜드 창업관리과 이사
85.9 이랜드 영업과 과장
86.1 (주)이랜드 경영과 과장
87.3 (주)이랜드 기획과 과장
89.9 이랜드 그룹 기획조정실 차장
현) 이랜드 그룹 기획조정실 본부장.